

미절단 보다 절단육 선호도 높았다

□ 정리/김동진 기자

'95년 닭고기 최소시장접근 물량(MMA) 1차분 3,000톤과 2차분 4,700톤, 총 7,700톤 물량에 대한 수입공매가 지난 3월 9일과 28일 농림수산부 산하 축산물유통사업단 회의실에서 육계계열화업체 등 닭고기 수입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공매방식은 일반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예정가격 이상에서 도착시기별, 품목별로 최고의 공매납입금(응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는데 응찰최소단위는 18톤 이상이었고 미절단, 절단 구분없이 한업체당 500톤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다.

UR협상에 의해 '93년부터

닭고기 미절단 신선, 냉장육이 수입 개방된데 이어 금년부터 냉동닭고기가 수입개방됨에 따라 사실상 닭고기는 국제시장과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금년부터 들어오는 냉동닭고기는 양허관세 20%로 '97년 6월말까지 배정된 쿼터량('95년 7,700톤, '96년 10,400톤, '97년 6월말 6,500톤)이 들어오게 되며 이후부터는

표1. '95 제1차 닭고기 수입공매 입찰 결과

(3천톤, '95. 3. 9~10)

구분	6월 이전 물량		7월 이전 물량		비 고
	업체명	물량(톤)	업체명	물량(톤)	
미 절 단	국 제 운 송	18	국 제 운 송	115	공매납입금 : 최고 251원 최저 105원
	금 토 일 식 품	54	금 토 일 식 품	18	
	도 계 유 통	200	맘모스체인본부	200	
	미주트레이딩	100	미주트레이딩	100	총 1,800톤중 201톤 유찰
	바 다 상 사	150	바 다 상 사	50	
	부 로 식 품	80	부 로 식 품	80	
	축 협 중 앙 회	54	축 협 중 앙 회	54	
	하 림	36	태 평 양 식 품	200	
	하 성 교 역	50	하 성 교 역	40	
계		742		857	1,599
절 단	대 진 식 품	50	봉 산 식 품	100	공매납입금 : 최고 1,250원 최저 417원
	봉 산 식 품	100	부 로 식 품	160	
	부 로 식 품	120	삼 성 물 산	300	
	삼 성 물 산	80	해 태 상 사	40	
	해 마 로	250			전량낙찰
계		600		600	1,200

관세 30.5%로 전면 개방되어 매년 1.5%씩 관세가 낮아져 2004년부터는 20%의 관세로 닭고기가 수입되게끔 일정이 짜여져있다.

이번 공매는 국내사상 처음 열리는 닭고기 키퍼량 공매로 금년 전반기에 1차분, 후반기에 2차분의 공매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3월 9일 첫 공매가 실시된 이후 연일 닭값이 산지가격 2,000원선을 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가조절 차원에서 정부가 서둘러 취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며 공매가 끝난 모든 물량은 7월 이전에 수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민간유통업체(종합상사, 닭고기 전문유통업체)들이었으며 육계 계열화업체들도 참여를 하였는데 1차는 35개업체, 2차는 44개업체가 입찰에 나서 닭고기수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표1, 2에서는 이번 공매에서 낙찰된 업체와 물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절단육이 미절단육 보다 인기가 높았으며 1차때 소극적으로 나선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2차때는 다소 적극적이었다.

1차 공매때 미절단 201톤

이 유찰됨에 따라 1차에서 6:4의 비율로 미절단육에 공매권을 높게 배정했던 것을 2차에서는 4:6의 비율로 낮게 공매권을 배정하였는데 이틀에 걸쳐 실시된 2차공매에서도 역시 미절단육은 562톤의 물량이 유찰되어 이 물량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1, 2차에 걸쳐 가장 많은

물량이 입찰된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절단육만 800톤이었다.

입찰참가자들이 응찰한 공매 납입금은 전액이 축산발전 기금에 납부되어 쓰여지는데 공매납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수입불이행을 할 경우 향후 3년간 공매에 참여할 수 없고 만약 입찰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입찰에 응할 수

표2. '95 제2차 닭고기 수입공매 입찰 결과

(4,901톤, '95. 3.28~29)

구분	7월 이전 물량				비 고
	업체명	물량	업체명	물량	
미 절 단	국 제 운 송	36	우 진	38	공매납입금 : 최고 270원 최저 86원 1,960톤중 562톤 유찰
	금 토 일 식 품	36	코 파 무 역	18	
	동 성 양 행	36	하 성 교 역	50	
	바 다 상 사	300	하 전 유 통	300	
	부 산 산 업 사	54	한 국 바 이 오	144	
	연 구 기 계	36	한 국 축 산	300	
	영 육 농 산	50			
	계	1,398톤			
절 단	국 제 운 송	36	아 나 실 업	18	공매납입금 : 최고 1,100원 최저 290원 전량낙찰
	금 토 일 식 품	36	유 시 티	200	
	대 구 맥 시 칸	54	유 진 글 로 리	40	
	대 연 식 품	36	일 우 실 업	19	
	동 성 양 행	18	체 리 브 로 식 품	36	
	동 원 산 업 사	36	축 협 중 앙 회	216	
	두 산 상 사	60	태 평 식 품 공 업	36	
	미 원 상 사	60	폴 그 린 식 품	40	
	미 주 트 레 이 닝	200	하 립	250	
	봉 산 금 속	200	하 성 교 역	100	
	삼 성 물 산	500	하 전 유 통	131	
	삼 승 축 산	18	한 국 바 이 오	72	
	삼 우 물 산	50	한 성 기 업	120	
	삼 원 농 역	36	해 태 상 사	194	
	삼 회 인 터 그 레 이 션	35	협 창 상 사	40	
	신 라 식 품	54			
계	2,941톤				

없게끔 되어있다.

수입닭고기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한 도계장으로 승인을 받은 나라에서 들여오게 되는데 수입대상국은 미국, 중국, 태국, 브라질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수입대상국 선정, 국내도착가격, 수입시기 등을 놓고 각 업체마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 들어오는 물량은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약 3%를 차지하는데 7월 이전에 모든 물량이 수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볼때 국내 육계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3은 S업체가 뽑은 국내 닭고기 도착가격을 나타낸 것

표3. 닭고기 수입시 예상가격

단위 : 원/kg

구 분	미절단육	날개	가슴살	다리	복채	넓적다리살
부 산 도 착 가 (CIF)	1,287.7	1,536.0	1,852.0	1,111.2	1,092.0	1,164.0
관 세(20%)	257.6	307.2	370.4	222.2	218.4	232.8
통 관 수 송 비	167.2	165.4	167.4	167.5	169.3	167.6
보 관 비 (2 개 월)	63.0	67.2	67.2	67.2	67.2	67.2
상 하 차 비	11.0	11.8	11.8	11.8	11.8	11.8
감 량 비(1%)	17.9	20.9	24.7	15.8	15.6	16.4
운 송 비	80.0	80.0	80.0	80.0	80.0	80.0
소 계	1,884.4	2,188.7	2,573.5	1,675.7	1,654.3	1,739.8
서 울 도 착 가 (자본이자 3%)	1,941.0	2,254.4	2,650.7	1,725.9	1,703.9	1,792.0
최 종 납 품 가 (보관·운송·마진20%)	2,329.2	2,705.3	3,180.0	2,071.1	2,044.7	2,150.4

*CIF 가격은 중간치를 적용하였음. 선적지 미국

(S사 제공)



△1차공매때 입찰경과를 기다리는 모습(축산물 유통사업단 회의실)

이다. 미절단의 경우 최종납품 가격이 2,329.2원인데 공매납입금 최저가를 100원으로 환산할 경우 국내 산지가격이 생체kg당 1,157원 이하로 하락할 때는 수입닭이 이익을 남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절단육의 경우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복채의 경우 2,

344.7원인데 공매납입금 최저가를 300원으로 보고 환산해 볼 때 생산지 가격이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익이 남지 않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실제 도계장에서 납품하는 가격이 4,000원 선이되고 있어 닭고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매납입금이 이보다 높은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상가격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들은 닭고기 수입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그렇다고 너무 방관만 해서는 않된다. 이번 공매를 시작으로 생산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수입이 아닌 수출로 우리시장을 외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